방송통신위원회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2012. 1. 3.(화)

해명자료

문의 : 대변인실 공보팀 정성환 팀장(☎750-1520)
대변인실 공보팀 안덕기 사무관(☎750-1521) dgahn@kcc.go.kr

"최시중 방통위원장측 억대 수뢰" 보도, 사실 무근

'12.1.3.(화) 한국일보 1면에 보도된 '최시중 방통위원장측 억대 수뢰' 제하 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□ 보도 내용

김학인씨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힘을 써 줘 EBS 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위원장 측에 수억원을 건넸으며, 금품을 건넨 통로로 최위원장의 측근 정모씨를 지목

□ 방통위 입장

o EBS 이사 선임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 보도(1. 3)는 전혀 사실 무근임

- 방송통신위원회는 EBS이사 선임과 관련, 2009년 9월 공모절차 후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김학인씨를 선임했으며,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힙니다.

- 당시 김학인씨는 교육계의 추천으로 9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선임되었으며,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,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.

o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EBS 이사 선임과정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개입해 인사 비리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한국일보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,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중입니다.

o 또한 퇴직한 정모 정책보좌역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입니다.